

2018년 3월 21일(수)

272장 -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

- (1)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 예수께로 나갑니다
자유와 기쁨 베푸시는 주께로 갑니다
병든 내 몸이 튼튼하고 빈궁한 삶이 부해지며
죄악을 벗어 버리려고 주께로 갑니다
- (2) 낭패와 실망 당한 뒤에 예수께로 나갑니다
십자가 은혜 받으려고 주께로 갑니다
슬프던 마음 위로받고 인생의 풍파 잔잔하며
영광의 찬송 부르려고 주께로 갑니다
- (3) 교만한 맘을 내버리고 예수께로 나갑니다
복되신 말씀 따르려고 주께로 갑니다
실망한 이 몸 힘을 얻고 예수의 크신 사랑 받아
하늘의 기쁨 맛보려고 주께로 갑니다
- (4) 죽음의 길을 벗어나서 예수께로 나갑니다
영원한 집을 바라보고 주께로 갑니다
멸망의 포 구해어나와 평화의 나라 다 다라서
영광의 주를 뵈오려고 주께로 갑니다

286장 -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 (1)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날 붙들어 주시고
내 마음에 새 힘을 주사 늘 기쁘게 하소서
- (2)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내 소원 다 아시고
내 무거운 짐 맡아주사 참 평안을 주소서
- (3)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날 정결케 하시고
그 은혜를 내 맘에 채워 늘 충만케 하소서
- (4)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내 길 인도하시고
주 성령을 내 맘에 채워 늘 충만케 하소서
- 후렴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맘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아멘

3월 22일(목) 기도 담당 : 손웅열 집사

이른아침예배

인도 : 김명자 목사

예배를여는말	인도자
신앙고백 사도신경	다같이
찬송 272장	다같이
기도	김동남 집사
성경봉독 창 6:1~7	인도자
찬양	새벽찬양대
설교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이상학 목사
기도 준비된 기도문을 따라	다같이
찬송 286장	다같이
축도	설교자

<창세기 묵상 본문 및 설교 제목>

요일	본문	제목
3월 20일(화)	창 5:1~32	아담의 계보
3월 21일(수)	창 6:1~7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3월 22일(목)	창 6:8~22	노아, 절망 속에 발견하신 하나님의 소망

※ 이른아침예배 시 성경책을 꼭 지참해주시기 바랍니다.

새문안교회 이른아침예배 기도문

2018년 3월 16일(금)

온 세상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

오늘도 새 하루와 생명을 허락하시며 하나님의 다스리심 안에서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의 많은 영향력 속에서 영적인 시야가 흐려지고 때론 두려움과 분노에 쉽게 휩싸이는 저희의 연약함을 고백합니다. 눈에 보이는 세상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임재를 발견하며 살아가는 저희 되도록 주님 손으로 붙잡아 주옵소서.

주님, 우리는 악한 영의 유혹과 공격 앞에서 쉽게 엎드러지며 깨어지기 쉬운 연약한 자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향한 사랑을 거두지 않으시며 은혜로 회복의 길을 열어가시는 주님 사랑과 그 신실하심에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오늘 하루 주님의 은혜를 진실로 맛보아 아는 자처럼 살아가며 응답하게 하시고 이 땅을 향한 주님의 긍휼을 드러내는 삶 살게 하옵소서.

교회를 세우시고 이 땅을 회복시키시는 하나님,

한국 교회가 주님이 주신 빛과 소금의 사명을 새롭게 깨달아가게 하옵소서. 선과 악의 실재를 드러내는 진리의 빛을 비추며 스스로 거룩함과 정결함을 지켜나가게 하옵소서. 새문안교회를 긴 역사 가운데 이끄신 손길로 오늘도 함께 하여 주옵소서. 담임목사님과 성도들 모두 하나님의 사랑 안에 온전히 머물러 그 뜻 안에서 주님을 섬기며 나아가게 하옵소서.

새 성전 건축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주님이 허락하신 성전을 온전하게 세워가기를 소망합니다. 무엇보다 먼저 우리 마음 가운데 주님의 전을 사랑하는 마음을 더욱 크게 하시고, 그 중심에 거하실 하나님을 기대하게 하옵소서.

진리와 사랑으로 다스리시는 하나님, 이 땅의 지도자들의 마음을 강권하셔서 수많은 중요한 결정과 판단을 내릴 때, 하나님을 경외하고 백성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임하게 하옵소서. 급박하게 돌아가는 국제 정세 중에도 한반도를 향한 주님의 은혜를 허락하시고, 평화와 소망의 날이 이어지도록 지켜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기를 소망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